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온의 노래

(시편 48:1-1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온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정교한 성전의 우아한 모습은 시온을 온통 영광으로 뒤덮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시온의 노래를 실감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시온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시편 48편의 주제 역시 매우 상징적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고 있는 이 시는 시온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은 시편 46:4에서 한 번 나오며 시온의 노래 중 첫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76, 84, 87, 122편이 시온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시 84: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시 122:1-2). 이처럼 시편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시온성은 유대인들만의 기쁨이 아니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1. 여호와께 찬양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1절).

시인은 1절에서 뿐 아니라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짖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46편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방어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므로 크게 찬송을 받으실 것이며 크신 하나님은 시온에 좌정해 계시면서 큰 찬송을 받으십니다.

2. 시온을 찬양함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2절).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한 후, 하나님의 성 자체를 또한 찬양합니다.

① 예루살렘을 찬양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고지는 아니지만 해발 2,500피트 높이에 위치해 있어서 남쪽 헤브론에서 이곳으로 올라오기에는 상당한 고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모두가 높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터가 높고 아름다웠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지형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시온을 거쳐로 택하신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②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게 하심

하나님이 최근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므로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이 구원은 시편 46, 47, 48편과 연결되는데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때에 암몬, 모압, 세일산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것과, 열왕기하 18-19장에 히스기야 때에 산헤립 군대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신 두 가지 구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4절의 ‘왕들’은 산헤립 한 사람보다는 암몬, 모압, 세일산의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5절에서는 간결한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열왕들이 연합하여 시온을 공격하나 하나님께서 이를 격퇴하시므로 저희는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피하여 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영여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는 분

명하게 들어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적들의 썰렁에 대해서 시인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고,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림 같다고 했습니다(6-7절). 시온성을 공격한 적군의 멸망을 동풍을 만난 다시스의 배에 비유한 것입니다.

③ 공동체의 중언

“우리가 들은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8절).

하나님 구원에 대한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능력 있게 행하신 것을 들었고, 또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을 통해 성숙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였지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들었고, 이제는 눈으로 보므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보호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3. 하나님을 기뻐함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10절).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적군을 격퇴한 사실에 대해 주의 성막에서 감사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구원하신 소문은 땅 끝까지 미쳤고, 그때 여호와와 그의 이름도 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는 정의의 행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에서 능력과 정의는 2대 요소입니다.

“저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12절).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히 보고 묵상하면서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13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에서 보는 시온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3절). 시온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정교한 성전의 우아한 모습은 시온을 온통 영광으로 뒤덮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시온의 노래를 실감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시온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켜가노라면 잃는 것도 있고, 빼앗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말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자신의 망대가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부당함에 의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정의로 인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찬송의 영원한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북한 구원을 위한 2007 서울 금식 통곡 기도회

3월 29일(목) 오후 5시 「본당으로 모이자」

전국의 목회자,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구원과 조국이 처한 엄청난 현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2007 서울 금식 통곡 기도회가 3월 29일(목)로 임박하였다.

은 성도들은 북한의 구원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 응답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국과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한 끼 금식하며 간

구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서울교회 성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란다.

한편 우리교회는 통곡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 금요 다락방 모임과 철야 기도회를 29일 통곡 기도회 참여하는 것으로 대처기로 했다.

당일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관례로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서울교회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

2007년 전반기 교사교육 · 기도회

3월 27일(화) 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007년 전반기 교사 교육 및 기도회가 열린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원형 장로)는 2007년 한 해 동안 각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는 교사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교사 교육 및 기도회를 3월 27일(화) 오후 7시30분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이 날 강사로는 고홍수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가 선다. 각 부 교사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제1회 서울문예 백일장 개최

서울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담긴 문예 창작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서울문예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유치년부터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께 응모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문예 백일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운문부와 산문부, 간증문의 3개 부문으로 합니다. 당선작은 순례자 지면을 통하여 작품 전문을 게재하고 당선자에게는 다양한 부상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응모를 기다립니다.

1. 모집 부문 :

- (1) 운문부 - 시 3편 이상
- (2) 산문부 - 단편소설(풍트), 희곡, 기타 생활수필 각 1편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3) 간증문 - 산문 1편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 대상 및 응모 자격 : 서울교회 성도

3. 원고 마감 : 2007년 4월 30일 (월)

4. 보낼 곳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서울교회 '서울문예 백일장' 담당자 앞
(문의 : 02-558-1106)

5. 당선작 발표 : 2007년 5월 5일, 서울교회 홈페이지 및 5월 6일자 <순례자>에 공고

- (1) 대상 : 0명 (운문부, 산문부, 간증문)
- (2) 최우수상 : 0명 (부문별)
- (3) 우수상 : 0명 (부문별)
- (4) 장려상 : 0명 (부문별)
- (5) 특별상 : 새싹문학상, 은빛문학상

6. 응모요령

- (1) 모든 응모작은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응모작까지 유효합니다.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마감일까지 nasojung@hot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 (2) 겹봉투에 <서울문예 백일장 응모작>을 명기하고, 원고 첫 장과 맨 뒷장에 응모 부문과 응모자의 이름,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교적번호, 해당 교구 및 소속 부서를 기재해 주십시오.
- (3)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는 반드시 A4용지에 출력하여 보내주십시오. (팩스, 이메일 원고는 받지 않습니다.)
- (4) 모든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최 : 서울교회

주관 : 서울교회 출판국 (순례자)

- 천국의 VIP - 초청 찬양예배 드린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100만인 전도운동 본부(단장:김광신 장로)는 그동안 은 교회가 이름을 적어놓고 함께 기도해 오던 사랑하는 우리의 대신자 가족, 이웃들을 모시고 교회를 소개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일은 세 차례 초청예배 중 첫 번째 날로 이종운 위임목사님의 초청의 말씀과 바리톤 정동호 선생(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의 독창과 아멘 관현악단 연주와 교회가 마련한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운동본부는 말한다.

제31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심검위원 구성

제31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부흥신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하며 10주간 매주 월요일 개최한다. 3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심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지도: 윤영국 목사 · 원강: 민순구 장로
- 부감: 최광성 집사
- 행사관리: 유승순, 강승웅, 정동화, 한주찬, 장양일, 최정인, 윤명구
- 접수: 김수호, 임송자, 노인숙, 박현영, 박종숙, 신선주, 전광환, 최경희
- 안내(1) 행사안내: 박순복, 김순영, 장호림, 최금숙, 최종희, 박민숙, 오정숙, 나연신, 박한옥, 이현미, 양미숙, 서양지
- 안내(2) -커피, 차: 김유경, 박분옥, 박재숙, 이은희, 이현주
- 서적: 김인숙, 고정숙, 신정순, 오은이, 임인선, 하영숙, 함은희
- 찬양: 글로리아 중창단
- 식사: 권사회

단기전도학교 마지막 주간 교회학교에서도 개강

-다음 주일 성경공부 시간부터-

100만인 전도운동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전교인 수료 목표로 시작되었던 1주일 과정의 단기전도학교가 이번 주일을 끝으로 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장 · 단기 전도학교 수료자를 모두 합해 800여명에 이르지만 아직 사정상 전도학교를 수료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각 교회학교별 단기전도학교를 개강함으로써 전도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00만인 전도운동 본부는 밝혔다. 장년부(1부-5부, 찬양대원, 신앙강좌반 포함)에서는 다음 주일(4월 1일)부터 5주일에 걸쳐 성경공부 시간에 2층본당에서 개강한다. 운동본부는 이 기간을 통해 미수료자들에게는 수료의 기회가, 기 수료자들에게는 반복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결연회 4월1일(주) 1부 예배 후 601호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 결연회가 4월 1일(주) 주일 1부 예배 후 601호실에서 열린다.

신앙대 순례 - 베들레헴 신앙대

우렁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김영준 장로(베들레헴 신앙대 대장)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가장 귀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곡조있는 기도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준비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봉사가 아니며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헌신입니다.

그 동안 서울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개혁의 중심적인 교회답게 주일저녁 찬양예배에 남성 찬양대로 찬양케 하신 놀라우신 축복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논현동 시대에는 같은 대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3번의 찬양을 차가운 아스타일 바닥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감사의 눈물로 헌신하였었는데 이제는 예배마다 각각 다른 이름의 가운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는 비록 성악 전문가들도 아니고 대부분 교회 중직을 맡은 터라 연습시간도 부족하고 그리 짧지도 않아 목소리가 청아하진 않지만 화목한 모습과 헌신적인 신실한 모습에서 서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을 배경으로 멋진 연주복을 입고 크게 입 벌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은혜와 감사 가운데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더불어 저녁 찬양예배까지 주일성수하는 것을 가까이서 많이 봅니다.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음악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아버지를, 믿음의 형제를 권면하십시오. 음악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박승혁 지휘자께서 모든 대원을 준 성악가로 만듭니다.

바라기는 젊은 청장년 남자 성도님들, 바라만 보지 말고 많이 동참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아름다운 계대가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드높은 예배당 천정이 우렁찬 찬양으로 가득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문동진 집사(3교구)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려 주시려,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거듭 다짐하던 지난 날이 생각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의 일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음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번만은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적을 바랐습니다. 제 삶 속에서, 단지 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결론지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저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저 자신이 중요했고, 저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표적이 다름 아닌 신실한 삶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영향력 없는 크리스천, 허울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헝가리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가기 전의 수많은 계획들을 뒤로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속에서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맞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만 제 삶이 의미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지를 결단하였던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손해를 볼지 언정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생명과 진리의 초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천국시민양성

중등부 신입생 환영회

초대합니다!

오늘 중등부에서는 2007 신입생 환영회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다면 하나와 하나의 만남이 둘이 아닌 그 이상을 창조해 냅니다.

우리 중등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신입생 환영회는 1학년 학생들과 중등부에 새로 등록된 친구들, 출석을 하지 않는 친구들

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리게 하기 위한 행사를 갖습니다. 또한 소중한 우리의 친구들이 서로 사귀며 알아가고 중등부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숙한 신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중등부 많은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중등부가 사랑의 마음과 정성으로 친구들을 섬기는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되도록 여러 학부모님들과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시민 양성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이

손자의 집사(12교구)

사랑하는 준용이가 8살이 되어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학부형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어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앞세우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기대와 설렘 속에 있습니다. 요즘 제대로 뛰놀지도 못하고 오전엔 학교, 오후엔 각종 학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준용이 또래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착잡함과 안타까움과 측은함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은 저희 부부만의 생각일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칫하면 아이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무너질까봐 조용히 참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제도 속에 첫발을 내디딘 아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다짐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신실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도 후원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주고 기다리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아이의 재능과 소질을 찾아주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시민 양성 - 신앙강좌2부

푸른 풀밭, 설만한 물가

정병수 집사(신앙강좌2부 교사)



매주일 1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701호, 신앙강좌 2부(지도 : 김재진 목사)는 푸른 풀밭으로 변합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풀밭과 같은 신앙의 향기가 솟아나고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일상사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주일 낮 701호는 안식할 수 있는 푸른 풀밭입니다.

신앙 강좌 2부는 언제나 성령의 열기로 가득하며 "창조주 성령이여 오소서!(Veni creator Spiritus)"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날이 거듭나면서 성령과 함께 숨 쉬는 성도들의 배움의 자리입니다.

신앙 강좌 2부는 1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반은 성경 지식을 배우는데도 열심이지만, 그보다도 깨끗한 영혼을 위한 신앙심을 높이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강좌 공부는 아름답고 힘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간절한 소망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신앙 강좌 공부는 더욱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각 반별로 김재진 목사님이 1주 전에 배

포한 공과를 각 반의 지정 발제자가 미리 공부하여 발표합니다. 그리고 각 반의 교사와 반원이 토론을 하면서 성경 뜻을 이해하고 성경지식을 배웁니다. 2단계는 1단계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확신이 서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직접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매주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지식은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8반은 반원 모두가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까지의 권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버 천사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젊은이 못지않은 눈과 귀로 찬양하고 성경을 봉독하십니다. 실버 천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은 모두 9988234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아픈 다음 천국의 하나님을 뵈실 것입니다.

오늘도 701호 신앙강좌 2부의 푸른 초장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1-2)"라고 찬송하며, 성령으로 은혜가 가득합니다.

푸른 초장

올해는

· 성경 - 1독 이상

· 전도 - 1인 이상

초등부 노방전도 실시

초등부는 부장 서문석 장로와 교사 17명이 지난 3월 21일(수) 수요1부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인근의 대곡, 대연, 대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노방전도에 나섰다. 이날 전도는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였으며 새로 이사 와서 아직 다닐 교회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중점 전도하였다.

제 27기 단기전도학교 수료자

강영순 강윤경 김경옥 김경한 김계순 김광옥 김명심 김수진 김아리 김재중 김정숙 김태기 박인숙 박화실 서문석 서양지 성선규 송광호 송기춘 송영빈 신혜진 안경옥 왕경래 유명희 윤문자 윤봉준 윤숙희 이수련 이영자 이영조 이영주 이찬호 이태인 임광우 임순자 임우택 전광환 전인숙 정소영 차인화 최미희 최윤경 최현인 탁병준 한인진 홍지연 김형상 최금숙 총 48명

강남노회여전도회연합회정기총회

강남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제20회 정기총회가 3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수서교회본당에서 열린다. 각 지회 임원단과 지교회 총대는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7일(화) 장로교 목회자 교육원에서 특강을 한다. 29일(목) 복음신앙동지회를 소집하고, 저녁 5시에는 서울 금식 통곡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이사 : 고석태 집사 장효정 집사 가정(5교구) 동작구 사당동 1153 금강KCC @101-705
- 개업 : 장덕 집사, 임인자 집사(12교구) 'ENC' 상설할인매장-동수원 뉴코아백화점 3층 T. 031-225-2367
- 주간식당 봉사 : 베드로선교회(3.25) 바울선교회(4.1)
- 금주의 식사 : 오현상 성도, 김명옥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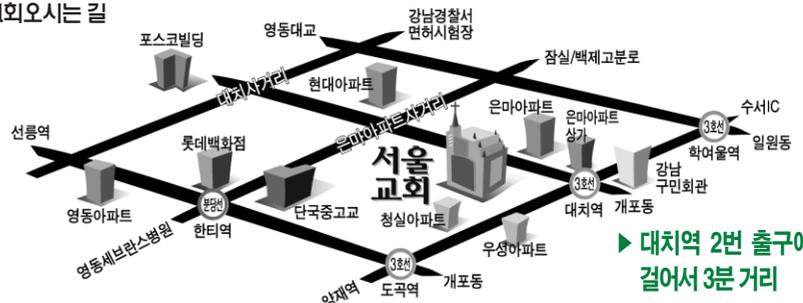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북한의 신앙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금식통곡기도회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